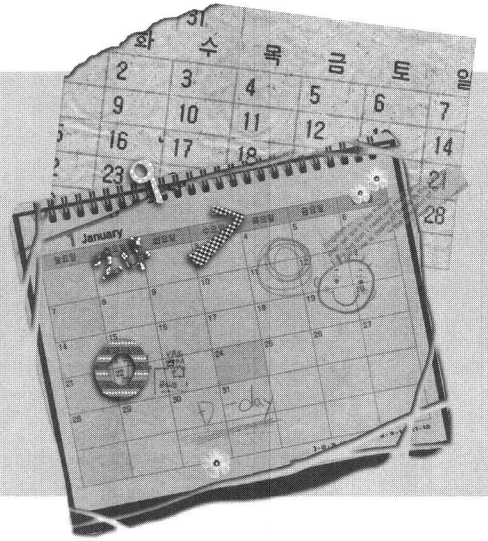


7월의 사양관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제공



일반 사양관리

젖소의 고온 스트레스는 대기온도가 25~27 °C 이상, 상대습도 60~70% 이상의 기후가 지속될 때 발생한다. 여름철은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젖소의 스트레스를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젖소가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사양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젖소의 고온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특히 사료섭취량 감소에 따른 유량 감소, 유질 저하 및 증체량 감소, 무기력, 후산정체 발생을 및 난산 증가, 수태율 저하 및 질병저항성 감소 등으로 젖소의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키기 때문에 철저한 고온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사 내 환풍 및 운동장 바닥을 청결히 하고, 착유자 및 젖소가 쾌적하고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가급적 시원한 시간대에 착유를 실시한다. 또한 반추위 내에서 발생하는 발효열 감소를 위해 신선한 물을 젖소에 급여해야 하고, 사료섭취량이 감소하므로 사료의 기호성과 영양소 농도를 높이고 새벽과 야간에 사료의 60% 가량을 급여하여 준다.

젖소는 고온에서 광물질 요구량이 증가하는데, 적정 온도에서 젖소의 광물질 배설 경로는 주로 분뇨에 한정되지만 고온 환경에서는 분뇨 외에도 발한, 탈모 및 타액분비 등으로 그 양이 증가한다. 따라서 Ca, P, Mg, 나이아신, 비타민 A, 비타민 E, Na 및 K 등을 적정화되도록 급여하여 제1위 내 환경을 적당하게 조절하고 유량과 유성분의 저하를 방지하도록 한다.



번식관리

여름철 고온이 지속되면 젖소는 미약발정, 둔성발정 등이 많이 발생하며 승가나 승가허용 행위도 다른 계절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여름철에는 발정주기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前) 발정일 또는 전(前) 수정일을 기준으로 18~23일째를 발정예정일로 잡고 발정관찰우를 별도로 표식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정이 오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발정주기를 예정일로 잡고 발정예정우를 관찰한다. 또 미처 발정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출혈이 보인 경우에는 그 후 18~23일째를 발정예정일로 잡고 세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발정관찰을 실시하는 빈도수도 하루 3회에서 4회로 30분씩 더욱더 집중해서 관찰해야 한다. 승가허용의 빈도는 1시간에 2~4회라고 알려져 있다. 반드시 육안으로 승가허용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정발견 보조기의 사용도 곁들여서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질병관리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은 사람에게도 식품의 부패 등으로 인해 식중독을 비롯한 수인성 질병, 일본뇌염과 같은 모기매개성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고, 고온다습으로 인해 불쾌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올라가는 시기이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7월은 힘들고 위험한 시기인데, 특히 모기매개성 질병의 발생으로 축산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무엇보다 유·사산과 기형태아를 유발하는 유행열, 아까바네와 같은 모기매개성 질병을 방어하기 위해 모기의 발생이 많아지는 한여름이 되기 이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체내에 항체를 만들어 두어야 하겠다.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통계자료)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아까바네병과 유행열의 발생동향을 보면, 소 아까바네병은 2009년 1두(1건), 2010년 124두(107건), 2011년 2두(2건)이 발생하였고, 소 유행열은 2009년 발생이 없다가 2010년 109두(92건), 2011년 110두(93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국가중대 가축전염병인 FMD나 브루셀라병 등과 같이 우리나라의 축산업에 치명적이고 막대한 손실을 입히지는 않으나 축산농가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전염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두 전염병은 모두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예방백신 이외 다른 치료방법이 없으므로 한여름 모기발생이 많아지기 이전 반드시 백신접종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축사주변 웅덩이 등의 모기서식지를 없애주는 것도 필요하다. ☺